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폴은 누군가 사냥꾼이라도 있으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온힘을 다해 외쳤네.

“여기요! 여기 와서 비르지니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화답한 것은 잇달아 “비르지니… 비르지니…”만을 반복하며 울려오는 숲의 메아리뿐이었지.

폴은 피로감과 서러움에 짓눌린 나머지 나무에서 내려왔네. 그는 어떻게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방법을 궁리해봤지만, 샘터도, 캐비지야자나무도 보이지 않았고, 불붙이는 데 쓸 만한 마른 나뭇가지조차 보이지 않았지. 그러자 폴은 경험상 자기가 가진 방편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고, 급기야 울기 시작했어. 비르지니는 폴에게 이렇게 말했다네.

“울지 마, 오빠. 내가 마음 아파 쓰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오빠가 힘들어하는 것도, 지금 우리 엄마들이 슬픔에 시름하시는 것도 다 나 때문이야. 아무리 착한 일이라 해도 엄마들이랑 아무 상의도 없이 뭘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아! 내가 너무 무모했어!”

그러더니 비르지니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 그러면 서도 폴에게 이렇게 말했다네.

“하느님께 기도하자 오빠, 하느님께서 우리를 붙잡히 여겨주실 거야.”

기도를 마치자마자, 두 아이는 개 한 마리가 짖는 소리를